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3

<http://sri.kostat.go.kr>

2023



통계청

통계개발원



돌봄 필요 노인의 현황 및 특성

김여진 (강원대학교)

- 65세 이상 노인의 17% 정도는 돌봄이 필요하며, 고령자일수록 돌봄 필요 정도가 높아지지만, 같은 연령대 내에서도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돌봄 필요 정도가 낮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집중 돌봄 필요 노인 10명 중 3명은 노인 독신가구를 이루고 있고, 의사가 진단한 만성질환 수가 '3개 이상'인 비율도 54.9% 정도이다.
- 돌봄 필요 노인의 경제 상태는 열악한 편이며 생활비 지출 부담 주체는 본인 또는 배우자 이외 자녀에게 의존하는 비율도 높다. 주거 환경 또한 노인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배우자로부터 정신적·수단적 도움을 더 많이 받지만, 배우자의 건강 및 관계 만족도는 더 낮은 편이다.
- 집중 돌봄 필요 노인 10명 중 3명은 자녀와 동거 가구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자녀로부터 돌봄을 제공받기 위해서이다. 자녀 동거 가구의 비동거 자녀는 부모와의 왕래가 적어, 동거 자녀에게 노인 돌봄 책임이 가중되는 편이다.
-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63.5%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신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 제한 때문이다.

고령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는 노인 인구의 삶의 질 즉 '인간다운 노후 생활 영위'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건강하게 가족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노인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인지적 노화 과정에서 겪는 삶의 질 저하는 가족 및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적·공적 돌봄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사적·공적 돌봄 제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어느 정도이며, 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어떠한지,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글에서는 돌봄 필요 노인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08~2020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노인실태조사」는 인구센서스 조사구 중 기숙사, 특수시설조사구, 섬 지역 조사구 외에 일반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인의 생활 및 특성 관련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돌봄 필요 노인의 현황 및 특성, 경제 상태와 주거 환경, 가족 지지, 사회관계 및 참여, 그리고 요양 보호 이용 실태를 알아보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증가와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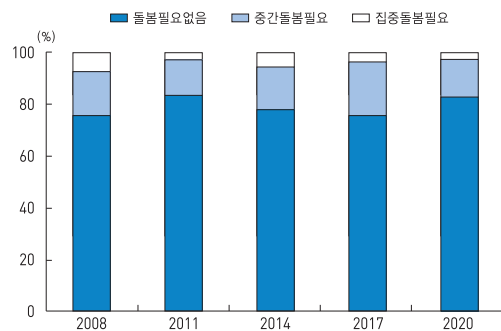
돌봄 필요 노인의 현황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노인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연령, 소득, 그리고 가구 구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돌봄 필요 노인을 연령, 소득, 가구 구성과 관계없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정의하는 활동 제약¹⁾을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인구로 확장하고자 한다. 또한 활동 제약 정도에 따라 돌봄 필요 단계를 세분화하여 ‘돌봄필요없음’, ‘중간돌봄필요’, ‘집중돌봄필요’로 나누고자 한다. 활동 제약은 신체적²⁾·정신적³⁾ 활동 제약을 모두를 고려하며 신체적·정신적 활동 제한이 모두 없는 경우는 ‘돌봄필요없음’, 신체적·정신적 활동 제한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중간돌봄필요’,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활동 제한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집중돌봄필요’로 구분하였다.

[그림 II-19]는 2008~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추정한 돌봄 필요 노인의 현황 및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 연도별로 변동은 있지만 약 75~80%의 노인이 ‘돌봄필요없음’에, 15~20%는 ‘중간돌봄필요’에, 그리고 3~7%는 ‘집중돌봄필요’에 해당된다.

2011년 이후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비율이 조금씩 감소하다가 2020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비슷한 기간 동안 기대수명 대비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건강수명) 비율이 조금씩 감소하다가 최근에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과 유사하다(2012년: 81.2%, 2014년: 79.7%, 2018년: 77.9%, 2020년 79.4%).

[그림 II-19] 돌봄 필요 노인의 현황 및 추세, 2008~2020



주: 1) 신체적·정신적 활동 제한 문항에 무응답이 없고, 조사 시 본인이 응답한 65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함.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II-20]을 통해 돌봄 필요 노인의 건강 상태를 주관적 건강과 만성질환 수를 통해 살펴보면, 돌봄 필요 정도가 높을수록 평소 건강 상태를 나쁘게 평가하였으며, 의사가 진단한 만성질환도 증가하였다. 평소 건강 상태에 대해 ‘건강한 편이다’ 또는 ‘매우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은 54.7%,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은 26.4%,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8.8% 정도였다. 의사가 진단한 만성질환 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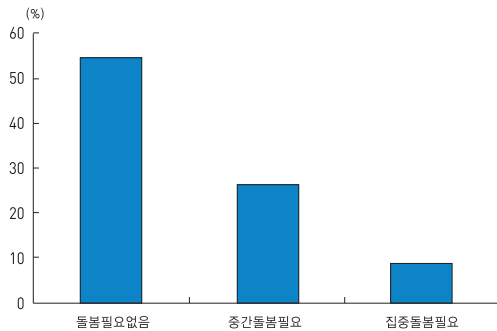
- 1) 활동 제약이란 장애 정도(중증, 경증) 및 확정 질환과는 별개로, 건강상의 문제로 일상생활의 기본 활동을 수행하는 데 겪는 육체적·정신적 제약을 의미한다.
- 2) 노인실태조사보고서에서 신체적 기능 저하자란 일상생활 수행 능력(ADL)과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IADL) 항목 중 1개 이상 제한을 갖는 노인이다.
- 3) 정신적 활동 제약은 치매 선별용 한국어판 간이 정신 상태 검사(MMSE-DS)의 인지 지능 점수가 17점 이하인 ‘분명한 인지기능 장애(severe cognitive impairment)’로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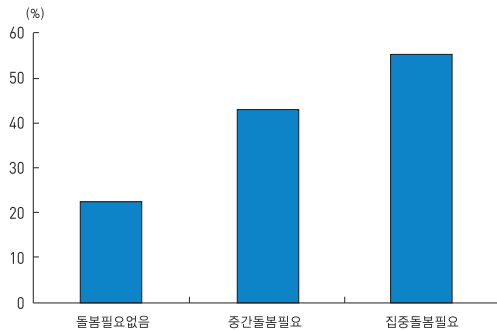
‘3개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은 22.5%,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은 43.1%,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54.9% 정도에 달했다.

[그림 II-20] 돌봄 필요 정도별 건강상태, 2020

1) 평소 건강상태



2) 만성질환



주: 1) 조사 시 본인이 응답한 65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평소 건강상태는 “귀하께서는 자신의 평소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매우 건강하다’ 혹은 ‘2=건강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만성질환은 의사가 진단한 만성질환 수가 ‘3개 이상’인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II-8〉은 돌봄 필요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여준다. 이를 살펴보면, 모든 조사 연도에서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

이 낮을수록, 현재 배우자가 없는 노인일수록 돌봄 필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2020년 도에는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56.0%,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의 60.8%,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67.4%가 여성이었으며, 현재 배우자가 없는 비율도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57.5%,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은 44.2%,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은 29.7%였다. 연령 분포를 보면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65.6%,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의 37.2%,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15.9%가 80세 이상으로 나타나 나이 들어감에 따른 활동 제한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8〉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돌봄 필요 정도, 2020

	돌봄 필요 없음	중간돌봄 필요	집중돌봄 필요	전체 (%)
성별				
남성	44.0	39.2	32.6	43.0
여성	56.0	60.8	67.4	57.0
연령				
65-69세	37.3	17.8	3.9	33.7
70-74세	24.7	18.7	9.2	23.4
75-79세	22.2	26.4	21.3	22.7
80세 이상	15.9	37.2	65.6	20.2
교육수준				
0-3년	7.8	20.8	43.7	10.6
4-6년	29.8	35.9	34.4	30.8
7-12년	55.8	38.5	18.6	52.3
13년 이상	6.7	4.8	3.3	6.3
배우자 유무				
있음	70.3	55.8	42.5	67.5
없음	29.7	44.2	57.5	32.5

주: 1) 조사 시 본인이 응답한 65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현재 ‘배우자 없음’은 ‘미혼’, ‘사별’, ‘이혼’, ‘별거’인 경우를 의미함.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2020.

활동 제한은 나이 들어감에 따라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기에 연령을 65~74세, 75~84세, 그리고 85세 이상으로 나누고 각 연령대 내 교육수준에 따른 돌봄 필요 집단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표 II-9>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낮아지지만, 각 연령대 내에서 돌봄 필요 정도에 따른 교육수준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65~74세 노인에게서는 돌봄 필요 없는 집단의 교육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간 돌봄 필요, 마지막으로 집중 돌봄 필요 집단이었다. 이러한 교육수준에 따른 돌봄 필요 정도의 차이는 75~84세, 그리고 85세 이상 노인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 불평등 현상이 돌봄 필요 정도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표 II-9> 연령 및 교육수준별 돌봄 필요 정도, 2020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돌봄 필요 없음	중간 돌봄 필요	집중 돌봄 필요	돌봄 필요 없음	중간 돌봄 필요	집중 돌봄 필요	돌봄 필요 없음	중간 돌봄 필요	집중 돌봄 필요
03년	2.5	5.6	6.6	14.6	26.1	40.7	32.6	41.7	63.3
46년	20.7	23.8	37.4	44.2	43.7	35.5	46.8	40.1	31.4
7-12년	68.7	63.9	47.0	36.9	26.2	20.5	14.4	15.7	4.4
13년 이상	8.1	6.7	9.0	4.2	3.9	3.3	6.2	2.6	0.9

주: 1) 조사 시 본인이 응답한 65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함.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2020.

<표 II-10>을 통해 돌봄 필요 정도에 따른 가구 구성을 살펴보면, 돌봄 필요 정도가 적을수록 노인부부가구를 이루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여, 돌봄 필요 없는 노인 10명 중 6명, 집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10명 중 3.6명 정도가 노인부부가구를 이루고 있다. 또한 돌봄 필요 정도가 커질수록 자녀와 동거하거나 노인 독신으로 거주하는 비율도 높아져 집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10명 중 3.5명은 동거 자녀에게서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지만, 나머지 3명 정도는 동거 자녀나 배우자로부터 필요한 돌봄을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표 II-10> 가구구성별 돌봄 필요 정도, 2020

	돌봄 필요 없음	중간돌봄 필요	집중돌봄 필요	전체
노인독신가구	18.7	26.0	29.2	20.1
노인부부가구	61.2	49.9	36.1	58.9
자녀동거가구	18.5	21.7	34.7	19.4
기타노인가구	1.6	2.4	0.0	1.7

주: 1) 조사 시 본인이 응답한 65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함.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2020.

노인 단독(독신/부부)가구를 형성한 이유에서도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은 ‘자녀가 결혼해서(25.5%)’, ‘개인 생활 또는 부부생활을 누리고 싶어서(21.1%)’ 순으로 많았지만,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자녀가 결혼해서(43.1%)’, ‘살고 있는 곳을 떠나기 싫어서(28.8%)’ 순으로, 본인의 적극적인 선택으로 인해 노인 단독가구를 구성했다



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한 노인 단독 가구 생활 시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중간 또는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다(31.7%, 38.2%)’는 점을 가장 빈번하게 언급했지만, 돌봄이 필요 없는 노인의 44.6%는 어려운 점이 없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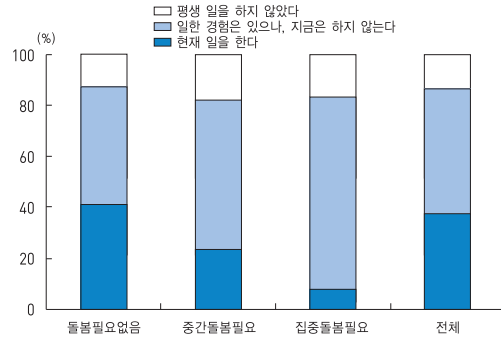
돌봄 필요 노인의 경제 상태와 주거 환경

[그림 II-21]을 살펴보면, 돌봄 필요 정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편이다. 돌봄 필요 노인의 경제활동 여부의 경우, 도움 필요 없는 노인 10명 중 4명, 중간 돌봄 필요 노인 10명 중 2명, 집중 돌봄 필요 노인 10명 중 1명 정도가 현재 일을 하고 있었다. 또한 중간 또는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10% 정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다. 거주 형태도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81.0%,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의 76.5%,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61.3%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무상으로 거주하는 비율도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11.0%,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은 2.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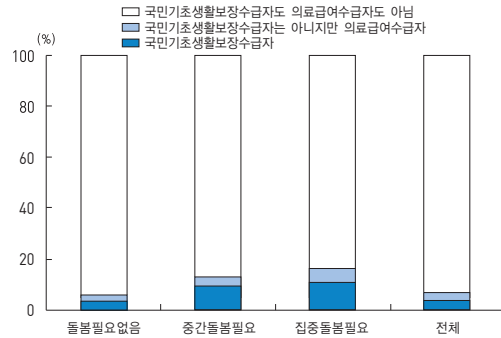
생활비를 부담하는 주체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대부분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담하지만, 중간 또는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자녀에게 의존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69.3% 정도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생활비를 전액 부담하였지만,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그림 II-21] 경제활동 및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2020

1) 경제활동 여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주: 1) 조사 시 본인이 응답한 65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경제활동 여부는 “귀하께서는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현재 일을 한다’, ‘2=일한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3=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 중 한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는 “귀하께서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의료급여수급자’, ‘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의료급여수급자도 아님’ 중 한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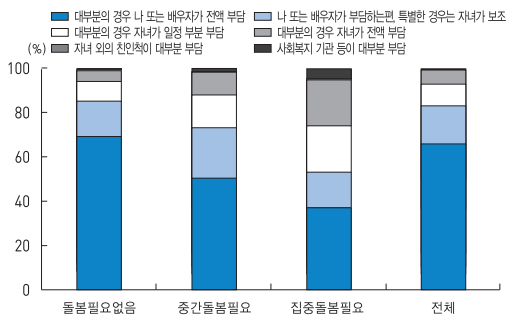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2020.

약 37.1%만이 스스로 생활비를 부담하였으며, 자녀에게 전액 또는 일정 부분 의존하는 비율도 41.9%에 달했다(그림 II-22).

생활비뿐만 아니라 의료비, 간병비 지출 부담

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 돌봄 필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신체적·정신적 활동 제한으로 인해 생활 및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스스로 충당하기보다는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도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39.7%는 ‘만족함’ 또는 ‘매우 만족함’ 이라고 응답했지만,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은 28.7%, 그리고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12.7% 정도만 만족하는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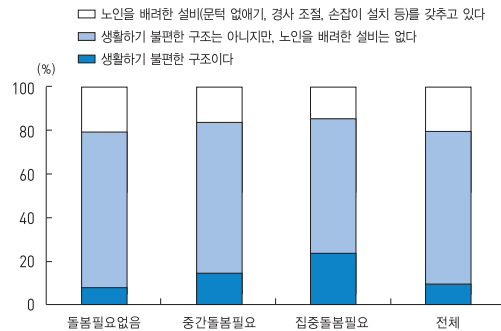
[그림 II-22] 생활비 지출 부담 주제, 2020



주: 1) 조사 시 본인이 응답한 65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지난 1년간 귀하는 생활비 항목에 대하여 대체로 어떤 방식으로 비용을 지출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0=지출 상황 없음’, ‘1=대부분의 경우 나 또는 배우자가 전액 부담’, ‘2=나 또는 배우자가 부담하는 편이지만 특별한 경우는 자녀가 보조’, ‘3=대부분의 경우 자녀가 일정 부분 부담’, ‘4=대부분의 경우 자녀가 전액 부담’, ‘5=자녀 외의 친인척이 대부분 부담’, ‘6=사회복지기관 등이 대부분 부담’, ‘7=기타’ 중 한 범주에 대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0=지출 상황 없음’, ‘7=기타’라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음.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2020.

[그림 II-23]은 노인이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하는데 편리한 정도를 살펴본 것이다. 분석 결과 돌봄 필요 노인이 돌봄이 필요 없는 노인에 비해

[그림 II-23] 거주지의 편리함 정도, 2020



주: 1) 조사 시 본인이 응답한 65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노인의 주택이 노인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조사원이 ‘1=생활하기 편리한 구조이다’, ‘2=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는 아니지만, 노인을 배려한 설비는 없다’, ‘3=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 ‘4=기타’ 중 한 범주에 응답한 비율임.
 3) 설비는 ‘문턱 없애기’, ‘경사 조절’, ‘손잡이 설치’ 등을 의미함.
 4) ‘4=기타’라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음.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2020.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20.8% 정도는 노인 편의 시설(문턱 없애기, 경사 조절, 손잡이 설치 등)을 갖춘 곳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돌봄 필요 노인의 경우 14~16% 정도만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약 24.1%는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를 갖춘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은 그 비율이 7.4% 이다.

이러한 거주지의 편리함 정도는 거주지 만족도에도 영향을 주어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현재 거주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돌봄 필요 노인에 비해 더 높은 편이다.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77.9%는 현재 거주지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다’ 또는 ‘매우 만족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했지만, 중



간 돌봄 필요 노인은 65.7%,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57.4% 정도가 만족하는 편(‘매우 만족하는 편이다’+‘만족하는 편이다’)이라고 응답하였다.

돌봄 필요 노인의 가족 지지

〈표 II-11〉은 배우자로부터 받는 도움의 종류를 보여주는 것이다. 제시된 수치는 각 도움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다. 분석 결과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배우자로부터 정신적 그리고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수단적 도움까지 다른 노인 집단에 비해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필요 없는 노인과 중간 돌봄 필요 노인 간 도움 정도 차이는 미비하다.

〈표 II-11〉 배우자로부터 받는 도움, 2020

	돌봄필요 없음	중간돌봄 필요	집중돌봄 필요	전체 (%)
고민상담	31.7	24.8	37.6	31.0
청소/식사준비/세탁	40.1	34.8	55.5	39.8
간병·수발·병원동행	24.5	24.1	41.0	24.7

주: 1) 현재 배우자가 있고, 조사 시 본인이 응답한 65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지난 1년간 귀하께서 자녀, 부모, 배우자와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배우자로부터 받는 도움의 정도를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2020.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배우자는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들의 건강 상태와 관계

만족도는 다른 집단의 배우자에 비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에 ‘건강한 편이다’ 또는 ‘매우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배우자는 59.7%,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의 배우자는 44.5%,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배우자는 26.3%였다.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또한 도움 필요 정도가 커질수록 ‘매우 만족함’ 또는 ‘만족함’에 응답한 비율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돌봄 필요 없는 노인: 72.7%, 중간 돌봄 필요 노인: 60.5%, 집중 돌봄 필요 노인: 56.3%).

한편 앞에서 언급했듯이 돌봄 필요 노인은 돌봄이 필요 없는 노인에 비해 자녀와 동거를 더 많이 하고 있다(표 II-10). 동거 이유는 주로 부모가 자녀로부터 돌봄을 제공받기 위함이다.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기혼자녀 동거 이유는 ‘자녀와 같이 사는 것이 당연해서(26.1%)’, ‘자녀에게 가사, 육아 등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22.4%)’ 순이었지만, 돌봄 필요 노인은 ‘나 또는 배우자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중간 돌봄 필요: 32.8%, 집중 돌봄 필요: 39.2%)’가 가장 높았다.

〈표 II-12〉는 동거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 정도 및 지원을 보여주는 것이다.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돌봄 필요 정도가 큰 노인일수록 동거 자녀로부터 정서적·수단적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다. 다만 경제적 도움(정기적 현금/비정기적 현금/현물)은 돌봄 필요 정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동거 자녀의 경우에는 도움을 주는 정도가 동거 자녀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집중 돌봄 필요

〈표 II-12〉 동거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 2020

	(%)			
	돌봄필요 없음	중간돌봄 필요	집중돌봄 필요	전체
고민상담	25.0	21.9	37.4	25.1
청소/식사준비/세탁	26.1	33.0	57.9	28.7
간병/수발/병원동행	10.4	16.2	39.3	12.7
정기적 현금 지원	55.7	58.0	55.8	56.1
비정기적 현금 지원	78.8	84.5	85.7	80.0
현물 지원	79.7	80.8	86.1	80.2

주: 1) 동거 자녀가 있고, 조사 시 본인이 응답한 65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고민상담, 청소/식사준비/세탁, 간병/수발/병원동행 도움 정도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3) 정기적 현금 지원/비정기적 현금 지원/현물 지원에 대해서 도움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2020.

노인에게 수단적 도움(청소·식사·간병 등)을 더 제공하는 편이다. 다만 수단적 도움에서 돌봄 필요 없는 노인과 중간 돌봄 필요 노인 간 차이는 미비했다. 비동거 자녀의 경제적 도움(정기적 현금, 비정기적 현금, 현물)은 동거 자녀와 달리 돌봄 필요 노인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표 II-13).

비동거 자녀와 연락 및 왕래 빈도를 분석해 보면, 연락 빈도는 돌봄 필요 정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왕래 빈도는 집중 돌봄 노인에게서 가장 높았다. [그림 II-24]는 비동거 자녀와의 왕래 빈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비동거 자녀의 왕래 빈도를 노인가구 구성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먼저 노인 독신가구의 경우 비동거 자녀가

〈표 II-13〉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 2020

	(%)			
	돌봄필요 없음	중간돌봄 필요	집중돌봄 필요	전체
고민상담	18.6	19.5	22.8	18.8
청소/식사준비/세탁	7.5	8.1	13.6	7.7
간병/수발/병원동행	7.5	9.8	15.2	8.1
정기적 현금 지원	43.5	57.3	54.2	45.8
비정기적 현금 지원	85.0	87.7	91.0	85.6
현물 지원	77.5	78.5	82.2	77.8

주: 1) 비동거 자녀가 있고, 조사 시 본인이 응답한 65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고민상담, 청소/식사준비/세탁, 간병/수발/병원동행 도움 정도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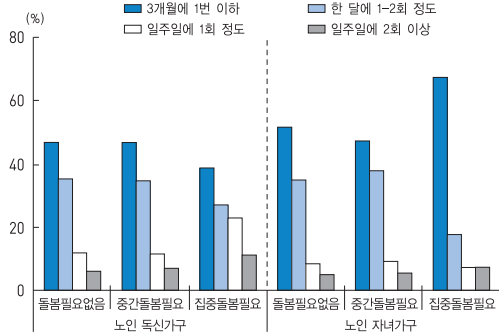
3) 정기적 현금 지원/비정기적 현금 지원/현물 지원에 대해서 도움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2020.

‘일주일에 1회 이상’ 방문하는 비율이 집중 돌봄 필요 노인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집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혼자 거주할 경우, 비동거 자녀가 왕래를 더 빈번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이 자녀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비동거 자녀의 왕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필요 없는 노인과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의 경우 노인 독신 가구일 경우나 자녀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비동거 자녀의 왕래 빈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상황에서는 같이 거주하는 자녀에게 돌봄에 대한 책임이 더 가중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림 II-24] 가구 구성 및 도움 필요 정도별 비동거 자녀 왕래 빈도, 2020



주: 1) 비동거 자녀가 있고, 조사 시 본인이 응답한 65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지난 1년간 따로 살고 있는 자녀 전체(자녀의 배우자 포함)와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2020.

돌봄 필요 노인의 사회관계 및 참여

〈표 II-14〉는 사회관계에서 가깝게 지내는 친구/이웃/지인에 대해 보여주는 것이다. 분석결과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54.0%,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의 37.5%,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28.5%는 가깝게 지내는 친구/이웃/지인이 '3명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0명'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은 5.0%이지만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20.2%여서 돌봄 필요 노인이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체적·정신적 활동 제한으로 인해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 및 연락 빈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년간 친구/이웃/

지인과의 왕래 및 연락 빈도를 살펴보면 돌봄 필요 정도가 높아질수록 왕래 및 연락 빈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3개월에 1번 이하' 연락 또는 왕래하는 비율도 돌봄 필요 없는 노인에 비해 돌봄 필요 노인이 2~3배 정도 높았다.

〈표 II-14〉 가깝게 지내는 친구/이웃/지인, 2020

	돌봄 필요 없음	중간돌봄 필요	집중돌봄 필요	전체
0명	5.0	12.0	20.2	6.4
1명	11.3	17.9	20.3	12.5
2명	29.6	32.6	31.0	30.1
3명 이상	54.0	37.5	28.5	51.0

주: 1) 조사 시 본인이 응답한 65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께서 가깝게 지내는(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형제 자매를 포함한 친구·이웃·지인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2020.

사회관계 형성의 다른 측면인 종교 활동에서는 돌봄 필요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았다.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59.3%,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의 61.9%, 그리고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64.3%가 믿는 종교가 있다고 했으며, 주된 종교는 불교 및 개신교(기독교)였다. 다만 〈표 II-15〉의 종교 활동 참여 빈도에 있어서는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더 높았으며, 돌봄 필요 노인은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약 16%정도 차지하였다.

〈표 II-15〉 종교 활동 참여 정도, 2020

(%)

	돌봄필요 없음	중간돌봄 필요	집중돌봄 필요	전체
없음	9.5	16.2	16.1	10.6
2주 1회 이하	36.1	37.3	37.1	36.3
주 1회	42.5	35.0	38.3	41.3
주 2회 이상	11.9	11.5	8.5	11.8

주: 1) 믿는 종교가 있고, 조사 시 본인이 응답한 65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종교와 관련된 활동(예배/예불, 종교기관에서의 봉사활동, 친교활동 포함)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셨습니다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2020.

〈표 II-16〉 사회단체 참여율, 2020

(%)

	돌봄필요 없음	중간돌봄 필요	집중돌봄 필요	전체
0개	49.6	74.0	94.6	54.3
1개	43.7	20.3	5.4	39.4
2개	5.3	3.9	0.0	4.9
3개	1.0	1.7	0.0	1.1
4개	0.4	0.1	0.0	0.3

주: 1) 조사 시 본인이 응답한 65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동호회(클럽활동), 친목단체(동창회, 계모임 등), 정치사회 단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각각의 사회단체에 '참여함'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2020.

동호회/친목단체/정치사회단체/자원봉사 등 사회단체에 지난 1년간 참여한 경험에서도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50.4%는 한 개 이상 활동에 참여했으나,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은 26.0%,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5.4%만 한 개 이상 사회단체에 참여하였다(표 II-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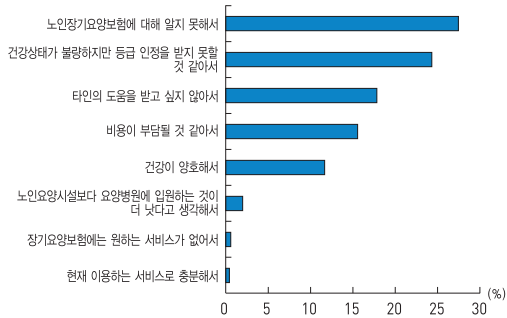
사회단체 참여와 달리 돌봄 필요 노인은 오히려 경로당을 더 빈번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26.1%,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의 39.5%,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35.9%가 경로당을 이용하였다. 경로당 이용의 주된 이유로 돌봄 필요 정도와 관계없이 '친목 모임'을 가장 많이 언급했지만, 중간 돌봄 필요 노인(43.1%)과 집중 돌봄 필요 노인(39.1%) 모두 '식사 서비스 이용'을 주된 이유로 꼽아 친목 모임과 더불어 실질적인 도움을 경로당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돌봄 필요 노인의 요양 보호 이용 실태

돌봄 필요 정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경험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36.5%,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의 10.6%,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1.5%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한 경험이 있었다. 이는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63.5%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림 II-25]는 장기요양보험 등급 미신청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다. 주된 미신청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서(27.5%)', '건강 상태가 불량하지만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할 거 같아서(24.3%)'를 언급해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제도



[그림 II-25] 집중돌봄필요 노인의 장기요양보험등급 미신청 이유, 2020



주: 1) 조사 시 본인이 응답했으며 집중 돌봄 필요 노인 중 장기요양보험등급을 신청하지 않은 65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2020.

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인정받은 노인들의 대부분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등급을 인정받은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의 83.6%,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95.7%가 현재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중 1개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서비스 중에는 ‘방문요양’을 가장 빈

번하게 이용하고, 다음으로 ‘방문목욕’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맺음말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 돌봄의 필요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돌봄 필요 노인은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경제 상태 및 주거 환경이 열악하며, 사회관계에서도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자녀와 동거할 경우에는 자녀로부터 필요한 정서적·수단적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독신으로 거주할 경우에는 사적 도움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상당수의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이 필요한 공적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주로 노인돌봄서비스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의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권장하는 사회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